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2 Vol. 4



커버스토리

연세대학교 쇼트트랙, **최지현**

동아리열전

여대생의 특별한 겨울나기
이화여대 피겨스케이팅 동아리 ESST

視視各各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운영팀의 못다한 이야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대학스포츠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대학스포츠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줄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8기를 소개합니다!

04



커버스토리

열정으로 뚝뚝 뭉친
'쇼트히메' 연세대
최지현

08



스포츠라이트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10



Photo Time

동계훈련 현장스케치
2014 시즌 비하인드샷/B컷

대학스포츠인간극장

어둠속에서 희망을 받아낸다. 골볼 국가대표 김해경

14

대학스포츠 소식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16

페이스메이커

실내 클라이밍

18

동아리열전

여대생의 특별한 겨울나기, 이화여대 피겨스케이팅 동아리 ESST

20

視視各各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운영팀의 못다한 이야기

22

멘토를 만나다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KBS 스포츠부 기자 정재용

26

레전드 매치

Again 2007, 동계 유니버시아드 '종합 1위'

28

KUSF NEWS

30

취재 후일담

31

열정으로 뚝뚝 땀 '쇼트히메' 연세대 최지현



한겨울이다. 농구·축구·배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목은 휴식기를 보내며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동계스포츠선수들은 얼음 위에서 또는 눈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에게 이불을 꿇꿇 싸매고 따뜻함을 즐길 여유는 없다. 추운 날씨를 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찬 움직임으로 녹인다. 그중 운동과 공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선수 한 명을 대학스포츠 웹진이 포착했다. 바로 쇼트트랙 종목의 연세대 소속 최지현이다. 동계스포츠·여자학생선수 최초로 커버스토리 주인공으로 선정돼 동계스포츠선수로서의 삶을 들려주었다.

스릴 있고 재미있는 종목, 쇼트트랙

쇼트트랙은 올림픽에서의 효자종목으로, 일시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 잠깐의 관심이 쇼트트랙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스피드로 코스를 돌다가 순위가 결정되는 종목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별로 힘이 들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편견을 뒤로하고 최지현은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에 대해 정의를 내려줬다. 그녀는 “쇼트트랙은 짧은 레이스 동안에 몸싸움과 속도감이 포함되어 있어 스릴 있고 재미있는 종목이다.”며 일축했다.

또한 쇼트트랙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도 전해줬다. 쇼트트랙은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이용하는 전신운동이기도 하다. “다리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상체가 버텨줘야지 잘할 수 있는 운동이다.” 500m, 1000m, 1500m, 3000m로

단거리와 장거리가 어우러진 쇼트트랙은 거리에 따라 전략도 다르다. 그녀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해서 선두로 치고 나가 이끌어 나가야 유리한 종목이다. 장거리는 체력 유지가 관건이다. 끝까지 체력을 아껴뒀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단거리나 장거리나 소모되는 체력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을 제치는 세부적인 전략도 다양했다. 결승선에서 단지 발을 내미는 전략이 다가 아니었다. “상대방보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서 제치기도 하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안쪽으로 파고들기도 한다. 또한 선두가 코스를 크게 도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밍을 노려 훅 들어가기도 한다. 흔히 찌른다고 표현을 많이 한다.” 쇼트트랙은 결코 단순한 종목이 아니었다. 찬찬히 뜯어보면 선수들은 기술력과 순발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보는 이들에겐 거친 몸싸움과 치열한 수싸움의 재미를 선사하는 최고의 종목이었다.

쇼트트랙과 함께한 10년

최지현은 취미로 스케이팅을 타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지방에 살았는데 링크장도 없고 쇼트트랙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작은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서울·경기도에 사는 애들이 스케이팅을 잘 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서울로 올라와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현재도 그녀의 삶은 쇼트트랙으로 가득하다. 최지현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스케이팅 훈련을 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지상훈련과 스케이팅훈련으로 마무리된다. “훈련 이외의 시간은, 쇼트트랙이 유산소와 근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목이라 체력이 많이 소모돼서 휴식을 취하곤 한다.”

롤모델은 안현수다. “모든 인터뷰에서 안현수 선수를 롤모델로 꼽았다. 중학교 때 훈련을 같이 하면서 스케이팅을 할 때 순간순간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수준이 다른 선수라는 느낌 때문에 안현수 선수한테 다가가기 힘들었고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훈련 도중에 저한테 해줬던 조언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쇼트트랙 선수생활을 하면서 기억나는 순간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간 동계체전에 두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땀던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발전에서 목표로 했던 국가대표에 뽑혔을 때가 기억난다. 아무래도 이때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난다. 결과적으로 국가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제가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얼떨떨했다.”며 가슴 벅찼던 순간을 떠올렸다.





코치도 말리지 못한 공부에 대한 열의

최지현은 지난 연말 자신의 소속 학교 연세대에서 주최한 '2014년 연세체육인의 밤'에서 우수학업선수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4.3 만점에 4.1 점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적이었다. 대학축구·배구·농구처럼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였다. "솔직히 제가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닌 점을 좋게 봐주시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훈련으로도 땀 흘린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코치한테 욕을 먹더라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우선시해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훈련에 임했고 시간표를 자유롭게 짤 수 있었기 때문에 훈련시간을 피해서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며 자신이 기울었던 노력에 대해 말했다.

힘든 점도 많았다. "새벽 훈련이 있는데 오후 9시 반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11시가 된다. 운동하기엔 부족한 수면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했다. 운동선수여도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이니까 시험기간이 되면 밤새서 공부하기도 했다. 시험기간이라 해도 훈련에 열외는 없었다. 운동선수기 때문에 스포츠경영학이나 스포츠마케팅과 같은 과목은 흥미가 생겨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 동기가 쇼트트랙의 얼굴 담당이라며 놀리듯이 붙여 준 '쇼트히메(공주)'라는 별명

을 민망해하기도 했지만,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쇼트트랙에 있어서 진지하고 의연한 자세를 가진 그녀에게 쇼트히메라는 별명은 어울렸다.

그녀, 슬럼프에도 굴하지 않다

최지현은 학업뿐만 아니라 쇼트트랙 실력도 뛰어나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대표가 아닌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50명의 후보군으로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는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 슬럼프는 어릴 때도 한번 겪었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았다. 그런데 1년에 12~13cm가 갑자기 자라서 성장통을 겪어 잠을 자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요즘도 부상 때문에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감이 떨어져 힘들긴 하다.” 부상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 성적도 저조하다.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순위권에 들어 예비국가대표로 선발돼 국가대표들과 훈련을 같이 소화했다. 하지만 9월에 있었던 최종선발전에서는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다가올 2월에 있을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도 정식 국가대표가 아닌 예비국가대표로 스페인에 가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다. “제가 가질 수 없었던 걸 가지게 되었고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금 이뤄놓은 것도 쇼트트랙 덕분이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쇼트트랙을 계속할 생각이다.”며 쇼트트랙에 고마워했다.

최지현은 “평창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뽑혀 메달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다른 목표로 “대한체육회나 작게는 빙상연맹에 들어가 꿈나무를 육성하고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하며, 그녀에게서 다른 학생선수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면 좌절하곤 한다. 이와는 다르게 최지현은 인터뷰 내내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초조해하지 않았다. 여유가 있었다. 메달과 함께 또 다른 목표가 명확했다. 지금은 쇼트트랙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공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대회성적에만 치중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는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그녀는 학업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면서 인생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대학스포츠선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최지현이었다.

글/ 이규호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대학 여자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정식으로 탄생을 신고했다. 유상수 초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2014 FIFA U-20 여자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남궁예지 선수를 중심으로 총 17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여자 축구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선보인 고려대학교 여자 축구팀을 만나기 위해 전지훈련 겸 스토브리그를 진행 중인 경남 하동을 찾아갔다.

모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신선한 돌풍을 만들기 위해 지휘봉을 잡다

하동 종합 경기장에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인천디자인고등학교(이하 인디고)와 스토브리그 경기를 준비 중이었다. 동글게 원을 그리며 서 있는 선수들 앞에서 지시를 내리며 '다치지 않게 차

라'는 마지막 주문을 마친 유상수 감독은 고려대학교의 여자축구부를 맡은 계기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교이기도 하고, 여자 축구라는 신선한 점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결국 팀을 맡게 만들었다."며 고려대학교 여자축구팀을 맡게 된 계기를 말했다.

한 골 넣어도 공격, 두 골을 넣어도 공격이다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상수 감독은 "남궁예지, 장창, 박예은, 홍예지를 주축으로 팀의 모든 선수들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수 인원이 적은 게 단점이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축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수비 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축구는 공격으로 승부가 난다. 비기거나 지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 골을 넣어도 공격, 두 골을 넣어도 공격을 할 것이다."라며 재밌고 즐거운 공격 축구를 할 것임을 밝혔다.

프로 의식을 가지고 여자축구의 모범이 될 팀이 되겠다

올해 목표에 대해 유상수 감독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많이 할 것이다. 우리 학교의 팀 창단이 많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선수들이 프로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직업’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자인 내가 앞으로 선수들의 변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선수들이 확고한 프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성적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우승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우승보단 게임 하나하나를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1년 동안 선수들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한 목표를 밝혔다.

한편 인디고와의 경기 도중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온 남궁예지 선수. 유상수 감독이 팀 내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해 기대가 큰 그녀와도 인터뷰를 나누어보았다.

쇼트트랙에서 축구 선수로

남궁예지 선수는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였다. 쇼트트랙에서 축구로의 전향, 크게 매치가 되어 보인진 않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게 되었을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축구는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셔서. 그런데 그때가 동계올림픽 시즌이어서

그럼 쇼트트랙을 해보고 싶다 하여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쇼트트랙을 4년 동안 했지만 큰 재미를 못 느끼셨더라고요. 힘들기만 하고 축구가 더 하고 싶어 지기만 했고요.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갔고,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

U-20 국가 대표로서 FIFA 여자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남궁예지 선수. 그녀를 원하는 학교들도 많았을 텐데 신생팀인 고려대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는 명성도 주요하게 작용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고려대를 온다고 들었어요. 다들 제가 한 번쯤 함께 발을 맞춰보고 싶은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결정했어요.”라며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보여준 남궁예지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신생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실력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만큼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며 키 플레이어로 활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 같이 어울리는 즐거운 대학 생활이 하고 싶다

15학번으로 입학하게 되는 푸릇푸릇한 새내기인 남궁예지 선수는 대학 생활에 대해 “일반 학생들과 많이 어울리고 싶어요. 같이 재밌는 추억들도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싶어요. 여자축구동아리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여느 신입생들처럼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팅은 노코멘트 할게요.’라며 웃는 그녀의 대학생활에 즐거움이 가득하길.

이날 인디고와의 경기에서 고려대학교 여자 축구팀은 시종일관 인디고를 몰아붙여 10점 이상의 점수 차를 냈다. 유상수 감독의 말처럼 화끈한 공격을 보여주며 무서운 언니들임을 입증한 그녀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녀들의 푸른 질주를 기대해 본다.

글/이태민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김건학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동계훈련 현장스케치

대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기치 아래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의 개막이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앞당겨졌다. 2월 동계훈련 일정을 대회로 변경하게 된 참가 학교들은 더욱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2015년 첫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1월 초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실업팀 등과 격일로 경기를 치르고 있을 정도로 각 팀들은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50112 호남대 vs 고양고 @울산 온양체육공원



경기 전 몸을 푸는 호남대 선수들의 모습



연습경기의 스쿼드에는 신입생이 다수 포함되어 시즌 시작 전 각 팀의 새로운 전술을 시험해 보는 좋은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연습도 실전처럼!

150113 **송실대 VS 김해시청FC** @김해 장유체육공원

경기 전, 경기 중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실시하는 송실대



전반전 종료 후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이경수 감독.
후반전에는 절반 가까운 수의 선수를 교체하며
신임성과 새 전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였다.



내셔널리그 소속 김해시청FC팀과의
실전 같은 연습경기.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 시즌 비하인드샷/B컷

140701 대학배구리그 인하대 vs 성균관대

“동기야 힘내라!”

2014 대학배구리그 인하대vs성균관대 게임에서
온 몸으로 응원하며 동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6·7기 이태민 기자와 8기 김건학 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인하대가 이기면 정말 기분이 좋겠어!”



이날 같은 체육교육과 동기인 조진구, 천종범 선수를 응원하러 온 이태민, 김건학 기자.
당시 김건학 기자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응원하러 왔어요.
평소 팬들이 응원을 잘 하지 않기로 유명한 인하대 체육관.
그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경기장이 가득 찼네요!

“진구야, 종범아 꼭 이기자!”



큰 소리로 온 경기장에 울려 퍼지도록 자극적인 응원 멘트를 외쳤던 이태민 기자
때문에 상대팀 서포터즈와 선수들에게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고 해요.
그의 직접적인 응원을 받은 동기들은 웃으며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민 기자는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기 때문에 절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김건학 기자 역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기분 탓 일거야”



결국 그의 응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특히나 놀란 인하대 서포터즈들!
모두들 이태민 기사를 쳐다보며 웃고 있네요.
함께 응원하던 김건학 기자와 친구 역시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이태민 기자님! 대단해요!

그들의 응원이 조금 과했던 탓일까요.
이날 인하대학교는 아쉽게 성균관대학교에 세트스코어 3대1로 패하며
1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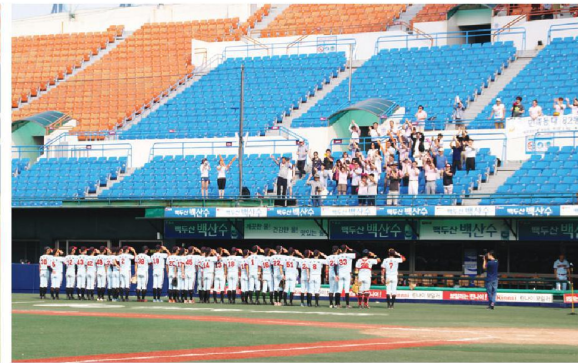
하지만 열띤 응원으로 끈끈한 동기애를 보여준
이태민, 김건학 기자였습니다! ^ 0 ^



KBO총재기 결승 동국대 vs 경성대_동국대 응원단
(동국대 야구부 매경기마다 경기장을 찾는 82학번 동문 응원단과
결승전을 맞아 특별히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온 친구들)



KBO총재기 결승 동국대 vs 경성대
수비를 마치고 들어가며 심판에게
공을 건네는 동국대 서예일



KBO총재기 결승 동국대 vs 경성대
우승 후 82학번 동문 응원단을 향해
경례하는 동국대 선수들



정기전 호랑이 옷을 입고 온 고려대 학생들
(양교 학생들의 응원 맞대결을 기획하였으나
정기전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기사를
올리지 못함)

글 · 사진/서다영(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어둠속에서 희망을 받아낸다.

골볼 국가대표 김해경

무심코 지나가는 길,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가 보인다. 아스팔트로 도배된 회색빛이 장악해버린 도시 한 편에 애처로이 핀 한 송이의 꽃. 스포츠도 그렇다. 많은 환호를 받는 몇 개의 스포츠들 밑에서 열심히 구슬 땀을 흘리며 걸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지닌 야생화와 같은 스포츠들이 있다. 오늘은 그중 시각이 제한된 어둠 속에서 희망을 던지고 받아내는 스포츠인 골볼의 국가대표로서 2014인천장애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김해경 선수와 대화를 나눠 보았다.

골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실명한 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로 시각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특수한 종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29년이라는 적지 않은 역사를 자랑하기도 한다. 하지만 골볼은 역사가 무색하리만큼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76cm 지름에 1.25kg의 무게, 최대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그 공이 굴러 오는 방울 소리에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그들. 무엇이 그들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소리에 몸을 날리게 만들었을까?

희망의 방아쇠가 된 골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하며 대학을 가는 데는 시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를 위해 특별히 확대문자를 제공하거나 점자책을 주는 것도 아니니깐요. 그래서 고2 때, 맹학교로 옮겨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체육 선생님이 골볼을 추천해주셨고 대학을 가는 데도, 제 꿈인 교사가 되는 데도 도움도 된다고 하셔서 그때부

터 도전을 시작했어요.

처음 접했을 때는 엄청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눈을 가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감각인 시각을 제한한 상태에서 다른 감각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특성 덕분에 배우고 몸에 익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그만큼 애정도 많이 생기고 또 2014년에는 인천장애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스릴과 짜릿함이 넘치는 스포츠

다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령이 있다곤 하지만 딱딱한 경기장 바닥에 공의 스피드에 맞춰 움직여 몸을 날리다 보면 공에 얼굴을 맞기도 하고 무릎, 발목 등 관절도 많이 다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격이 성공할 때 그 쾌감은 아픈 걸 다 잊게 할 만큼 짜릿해요. 그리고 주로 소리에 의존해 공격과 수비를 해야 하다 보니 발소리는 물론 상대방의 신호들, 그리고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 들어야 하니깐 그 긴장감 또한 스릴 있고요. 재밌으니깐 아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있고 한데 골볼도 사실 눈만 가리면 다들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동아리도 활성화돼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불모의 땅과 같은 환경

실업팀이 없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골볼이 배우기가 어렵다 보니 1, 2년 경력으로는 선수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경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인이다 보니 대회를 위해서 두 달가량의 합숙훈련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협회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존재해서 선수들이 오전에는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본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매일 일정량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당연히 경기력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볼이 팀 스포츠이다 보니 세 명이 하나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업팀이 있으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대회 두 달 전에 호흡을 부라부라 맞추다 보니 선수들끼리 많이 다투게 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도 명색이 국가대표이다 보니 엄연히 주전과 후보 구분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경쟁구도가 형성돼서 다들 예민한 상태인데



거기다 선수마다 수비의 폭이라던가,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맞추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처음 맞추면 사인도 잘 안 맞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야 할 대학, 현실은

시각 장애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손에 꼽아요. 열 명 중 세 명? 그 정도가 진학을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약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책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확대문자를 사용하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맹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점자책을 준비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점자 보도도 없으니깐 돌아다닐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학 진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절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니깐 마사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 직업 선택에 있어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깐 결국 다들 마사지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저 같은 친구들 돕고 싶어서 특수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요. 교수가 강의할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요. 그런데 막상 그 과목 시험에서 약시인 저에게 확대 문자로 출력한 게 아닌 일반 시험지를 줘요. 아이러니한 일이지.

골볼을 할 때도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대회를 나갔을 때 공문을 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전공의 경우에도 알겠다고는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해서 마치는 기간 동안 빠진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돼요. 성적은 성적대로 마이너스급이라도 적게 나오고 몸은 다치고 그러다 보니 후배들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안 그래도 나쁜 시력인데 충격을 받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요. 골볼을 오래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 * *

어둠이 유발하는 상상은 그 누구든, 심지어 야생의 동물들도 두려움에 떨게 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던지는 스포츠인 골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각장애 선수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강인한 전사의 심장을 가진 용맹한 선수들이다.

우리는 보이는 면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시각은 오감 중에 제일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감각이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한 발짝 더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글/이태민(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김건학(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들의 올림픽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란 유니버시티(University)와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다. 이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대학생 종합운동경기대회로, 1959년 토리노하계유니버시아드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U대회의 참가 자격조건은 대회가 열리는 해 17세 이상 28세 이하 대학·대학원생들과, 개최 바로 전년도에 학위를 수여 받는 졸업생에 한한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종목별로 내로라하는 대학선수들이 모여 국가대표로서 실력을 겨룬다. 즉, 전 세계 대학선수들의 집결지며, 대학생들의 축제라 할 수 있다.

¡Bienvenido! 2015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학생들의 올림픽 ‘2015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동계U대회)’가 오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

이번 동계U대회는 주 개최지인 스페인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슬로바키아 슈투르브스케 플레소와 오스르블리에에서 분산 개최된다. 종목은 5개의 주 종목(스키,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바이애슬론)과 11개의 세부종목(알파인,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크로스컨트리, 노르딕컴바인, 스키점프,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바이애슬론)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스키(크로스컨트리, 노르딕컴바인, 스키점프)와 바이애슬론은 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된다. 한편, 스피드스케이팅은 이번 대회 종목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은 이번 동계U대회에 5개 종목 선수 90명, 경기임원 20명, 본부임원 23명 등 총 133명의 인원을 파견한다. 슬로바키아 개최 종목 선수단은 오는 22일에, 그라나다 개최 종목 선수단은 31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013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만 무려 23개의 메달을 따내며 한국 빙상의 위엄을 높였다.



쇼트트랙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컬링

프리스타일스키

피겨

하키



이로 인해 이번 그라나다 동계U대회에서도 빙상(쇼트트랙) 종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아랑(한국체대)을 필두로 박세영(단국대), 서이라(한국체대), 한승수(고양시청), 이은별(전라북도청) 등 국가대표 선수들도 도전장을 내밀며 U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환영합니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한편, 그라나다 동계U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올여름 우리나라 광주에서 펼쳐질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때문이다. 광주U대회는 7월 3일부터 약 2주간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광주와 전라도 일대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3개의 정식 종목(기계체조, 리듬체조, 농구, 다이빙, 배구, 수구, 수영,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과 8개의 선택 종목(골프,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0개 국가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 및 임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7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한민국 대표 팀은 무주U대회에서 전체 6위, 대구U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점차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는 선상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광주U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차 국가대표팀을 이끌 대학선수들의 선전이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스포츠이벤트 준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또한 광주 U대회를 앞두고 '시험의 장' 혹은 '모범의 장'이 될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응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라나다 U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기를 바탕으로 그간 갈고닦은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더불어 광주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스포츠 외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김다예(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기획의도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에서
 기준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앞으로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실내 클라이밍

차근차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 클라이밍. 안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비도 5,000원~10,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높아진 인기 덕에 주변에서 클라이밍장도 흔히 찾을 수 있으니, 추운 날씨로 바깥운동이 힘든 2월의 생활체육으로 실내 클라이밍을 추천한다.

클라이밍장에 가면 발이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크기의 돌부터 손으로 잡기에도 작은 돌까지 다양한 크기의 돌들을 볼 수 있다. 이 알록달록한 돌은 '홀드'라고 부른다. 클라이밍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홀드를 무턱대고 잡아 클라이밍을 하면 금세 잡을 홀드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때문에 여기저기 퍼져있는 홀드를 보며 자신이 올라갈 코스를 머릿속에서 짚어나가는 것이 클라이밍의 첫 번째 순서이다. 하지만, 초보자가 코스를 짜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홀드 밑에 적혀있는 숫자를 따라가거나, 같은 색깔의 홀드를 따라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암벽이 만들어져 있다.





홀드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초크'이다. 작은 홀드를 꼭 붙잡고 암벽을 올라야 하는데 손에서 나오는 땀과 유분기가 이를 방해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하여 초크백을 뒤에 메고 수시로 초크를 손에 묻혀가며 클라이밍을 해야 한다. 손에 초크를 묻히고 집중하여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천장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올라가는 미션에 성공하면 이제 내려와야 하는데, 홀드를 잡고 있던 손을 떼고 안전장치에 의지하여 밑으로 내려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천장에 연결되어있는 줄을 잡거나 손으로 암벽을 짚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작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클라이밍을 시작해야 한다.



클라이밍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장비! 클라이밍 전용 신발이다. 클라이밍을 할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용하여 몸을 지탱해야 하는데, 발가락에 힘을 주어 홀드 위에 발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밍 전용 신발은 딱딱한 편이다. 또한 발을 꼭 감쌀 수 있도록 원래 발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문가 수준의 신발을 신는다면 발이 아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정사이즈나 한 치수 더 큰 신발을 착용하여 차차 발을 적응시켜야 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불리하지 않나요?”

“더 좋죠! 운동이 더 많이 되잖아요.”

반박할 수 없이 맞는 말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지니 암벽에 매달려 있기 위해 필요한 힘과 쓰이는 근육도 많아진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들까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몸무게를 이용해보자. 같은 시간을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적인 운동방법이 될 것이다.

클라이밍 지도자 생활을 하시고 계신 전문 강사님께 클라이밍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다이어트나 근력향상 등의 대답을 예상했으나, 대답은 '정신건강'이었다. 물론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전신 근육을 단련시키는 생활체육으로서 이미 매력이 충분하지만, 정신건강에 이로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한다. 클라이밍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잡아야 할 홀드만 보게 되는데, 오로지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주는 운동 클라이밍! 실내에서도 땀을 뺄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면 클라이밍을 적극 추천한다.

Information

KBS스포츠월드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3-76

전화번호 : 02-2600-8880

체험이용시간

월, 화, 목, 금 14:00~17:00

수, 토, 일 10:00~12:00, 14:00~17:00



버디클라이밍 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20-1 B1

전화번호 : 070-4191-7479

체험이용시간

월 ~ 금 11:00~22:00

토 11:00~18:00

노스페이스 다이노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25 4F

전화번호 : 02-900-4132

이색 클라이밍

우리나라보다 앞서 클라이밍에 매력에 빠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실내 암벽등반을 넘어 이색 클라이밍까지 도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서 겨울에 유행하는 것이 아이스 클라이밍이다. 암벽보다 훨씬 더 미끄러운 얼음벽을 올라가면서 스릴을 즐기는 이색 스포츠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가 경북 청송군에서 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부 우승은 막심 토밀로프(Maxim Tomilov, 러시아)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여자부 우승은 송한나래(한국외대 2년) 선수에게 돌아갔다.

여대생의 특별한 겨울나기 이화여대 피겨스케이팅 동아리 ESST



기자가 2010년 방문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라마운트 아이슬랜드 스케이트장. 그곳에서 본 머리칼이 새하얀 할머니가 핑크의 유니폼 드레스를 입고 스케이트를 타던 모습이 아직도 문화충격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 덕분에 인기 스포츠로 부상,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유망주 선수들이 꾸준히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을 찾아 그들만의 추억을 쌓고 있지만 그것은 일회성이며, 공간제약과 비싼 비용 탓에 수영, 배드민턴 등과 같이 꾸준한 생활 스포츠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 피겨스케이팅으로 특별한 겨울나기를 준비한다는 여대생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의 ESST이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피겨스케이팅 동아리 ESST입니다.

ESST는 Ewha Synchronized Skating Team의 약자로, 피겨스케이팅 종목 중 하나인 싱크로나이즈드를 하기 위해 모인 동아리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는 올림픽엔 없는 종목으로, 12명부터 32명까지 짝수의 선수들이 선(line), 벽돌형(Block), 원(Circle)의 형태로 집단의 모양을 음악에 맞춰 다양하게 바꾸는 경기입니다. 싱글 종목처럼 난이도 높은 기술에 대한 부담이 적고, 페어나 아이스댄싱처럼 이성 파트너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대 동아리로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탄생한 지 올해로 3년이 넘은 ESST는 여러 피겨인들의 피겨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화여대에는 전 국가대표출신인 김현정, 박민정, 윤예지가 재학 중이며 현재 코치로 활동 중인 다수의 졸업생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화여대만의 피겨역사에 힘입어, 지난 2012년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학생 한 명과 김연아 선수의 소치올림픽 코치로 유명한 류종현 코치의 우연한 만남으로 ESST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도 피겨를 보급하고자 했던 류 코치님의 제안으로, 체육과 소속의 동아리로 정식 등록되었고 최초이자 유일한 피겨스케이팅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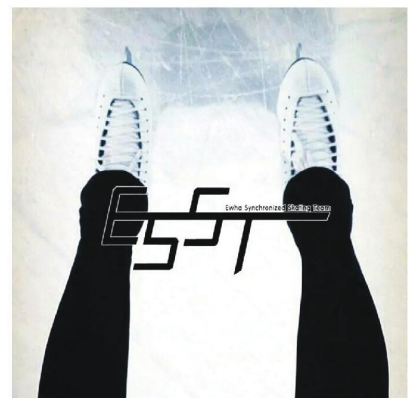
동아리가 되어 현재는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권영선 코치님께 일주일에 한번 지도를 받고 있다.

저희 동아리는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멤버를 받고 있어요. 커트라인 없이 멤버를 무작정 받기만 하다 보면 싱크로나이즈드 인원 부분과 새로운 기술들을 함께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멤버를 걸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멤버 선발에서는 성실함과 출석률을 가장 많이 봐요.

구성원은,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진 멤버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급이에요. 그래서 초급 급수 소지자와 미소지자로 나뉘어서 훈련하고 있고 싱크로나이즈드팀 자격조건에 적합한 급수를 취득하기 위해 서클과 에지를 연습하고 있어요.

체육과 소속 동아리라고 했는데 반 정도가 타과 학생인 것 같습니다.

처음 동아리가 생길 때는 체대생만으로는 싱크로나이즈드 인원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과 학생들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체육과 소속의 동아리지만 이 종목에 호기심이 있는 타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요. 체대에는 이미 다양한 체육동아리들이 있고, 보통은 자신이 해왔던 운동을 택하기 때문에 피겨와 같이 새로운 동아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요.





실제로 ESST에는 동아리를 통해 스케이팅을 처음 타본 학생, 잠시 피겨를 했었으나 중단했던 학생 등 피겨 열정으로 가득한 다양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열악한 피겨 환경, 피겨 '동아리' 환경은?

체육과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덕분에 레슨비와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비싼 스케이팅화를 자비로 구입하고, 인천에서 태릉까지 오는 멤버가 있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에 이곳 차가운 스케이팅장에 오는 것이 부담되진 않았을까.

태릉스케이팅장만으로도 감사해요. 초창기 류종현 코치님께서 말씀했을 때는 거리가 더 먼 의정부스케이팅장에서 탔었어요. 하하.

평소에도 멤버들 각자가 동아리를 위해 스트레칭, 점프 연습을 항상 하고 있다는 ESST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레슨이 없는 날에는 링크장 밖에서 모여 지상훈련을 한다고 한다.

선수들이 훈련공간이 부족해 고충을 겪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훈련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쉬

워요. 학교 내에 아이스링크가 생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하거나 대관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생활스포츠로서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피겨의 매력

피겨는 반전 매력이 있어요. 피겨스케이팅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근력과 운동신경이 필요해요.

피겨스케이팅이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팀스포츠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협동심이나 배려를 배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록 실력이 부족해 싱크로나이즈팀으로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연습하고 있지만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같이 스케이팅을 발전해나가고 있어요. 때문에 언젠가 저희의 모습이 팀으로 완성되면 그때 팀스포츠의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것보다 타는 것이 더 재밌다’는 ESST멤버들은 직접 한 번 타볼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처음은 물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에 대한 압박을 해소 시켜준다고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성인이 되면 직접 돈을 벌기 때문

에 부담이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사회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즐기고 싶어요. 또 어렵다는 편견도 있는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문제없어요. 초보자 단계에서는 주로 원을 그리는 서클과 스케이팅 날을 이용한 에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다 컸는데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ESST의 바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아리로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부원들에게 성실한 출석률을 항상 바라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인 만큼 멤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한 시간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졸업 후에도 새벽반으로도 스케이팅을 탈 생각을 가진 멤버들이 대다수인데, 그 마음처럼 졸업 후에도 계속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실력이 늘어 싱크로나이즈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ESST. 그들의 바람처럼 오늘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 대회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대학에 피겨스케이팅 동아리가 생겨나, 피겨스케이팅도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또 기다려진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스케이팅장에서도 머리칼은 하얗지만 화려한 피겨스케이팅 드레스를 입고 선수 못지않은 열정으로 빙판위를 가르는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볼 그날이!

글 · 사진/배수민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ESST 제공

ESST이 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팅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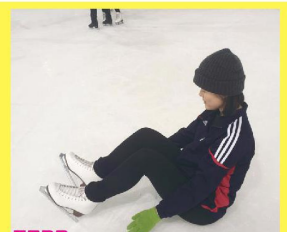
-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금물! 그러기 위해 처음에 넘어지는 것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
- 다리 근력을 키우고 스케이팅 탈 때는 몸에 힘을 뺏 것!
- (처음 스케이팅을 타는 사람들에게) 선수들처럼 발을 옆으로 밀면 NO! 스케이팅 타고 걷는 것이 우선! 걷는 것 적응 후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발씩 밀어보는 것!



TIP1
똑바로 선다.



TIP2
넘어질 것 같으면 푸끄러 앉은 자세를 취한다.



TIP3
넘어질 때 엉덩이를 가장 먼저 얼음에 닿게 한다.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운영팀의 못다한 이야기

작년 열린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가 엘리트 체육을 넘어서 대학 스포츠 전반적인 중흥을 이끌기 위해 시도한 첫 포석이었습니다. 무려 4개월에 걸쳐 치러진 이번 대회 of 초대 챔피언은 연세대학교 of 볼케이노 of 차지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ZOO, 국민대학교 KUBA, 인천대학교 스타트가 4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어떻게 시작되고, 또 운영되었을까요? 대회를 총괄한 KUSF 송명준 매니저(이하 송)와 각 학교 of 운영단 단국대 피닉스 장흥준(이하 장), 숭실대 TIB 김진구(이하 김), 그리고 연세대 볼케이노 임승진(이하 임)과 함께 지난 대회를 돌아보고, 다음 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 *

첫 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선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송 저에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보려고 왔었고, 7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체육관 대관 부분이었는데, 각 학교에서 돕는 차원에서 체육관 대관을 해줬어요. 대관이 된 학교 of 동아리들을 알아봐서 기획·운영단을 선정하게 되었죠.

각 동아리 입장에선 처음에 기획·운영단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장 이게 첫 대회였잖아요. 알려진 대회도 아니었고, 저희도 처음 하게 된 거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경기수

가 많다는 거에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임 교내 시합 진행은 해봤어도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대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시합도 뛰면서 운영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았나요?

장 인원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어요. 운영인원들은 경기를 뛸 수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운영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임 경기가 있을 때는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워낙 진행 위원들이 교내 경기 진행 경험이 많다

보니 진행을 맡기고 경기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진행에 별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믿을 만한 진행위원들만 있다면 운영을 하면서 같은 자구의 다른 팀들을 분석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하는 사람과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이 따로 나눠있었어요. 주장 같은 경우만 양쪽 모두 참가하고 나머지는 아예 따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 경기를 뛰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회들은 보통 처음부터 토너먼트 식으로 가거나 리그를 해도 네 팀이 조별리그를 하는 식으로 해서 경기 수가 작거든요. 반면에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TIB



볼케이노



피닉스

기본적으로 예선에서 9경기를 안고 가니까 참가비에 비해서 경기가 많은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전만 뛰게 되는 다른 대회들과 달리 비주전이나 신입생들도 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 기획단 입장에서는 동아리 지원금도 상당히 나와서 동아리 운영에도 적잖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송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만 했거든요. 자금 와서 생각해보면 KUSF 블로그기자단처럼 기획·운영단 역시 하나의 경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 저는 경기를 뛰지 않았지만 경기를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IB이 외부 대학교와 게임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다른 대학이랑 경기를 뛰고 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사실 TIB은 이렇게 대회 운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대회 운영에도 참가해봤더니 흥미도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임 저희도 가까운 지역 대학 동아리들과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대학선수들조차 처리되어 있지 않은 보험도 모든 참가 선수가 받을 수 있었고, 총장협의회 기자분들의 기사나 사진들로 더 많은 기록과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점도 있죠. 그중 가장 좋았던 건 평생 경기 힘들 TV중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반면에 첫 대회다 보니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송 제 입장에서는 기획·운영단이 대회운영에만 너무 치중한 게 아쉬워요. 운영뿐만 아니라 기호기이나 홍보에 대한 압박도 있었어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못 썼죠. 아무래도 첫 대회라 기본적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회를 기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하지 않았나. 솔직히 제가 드린 게 없거든요.

임 초반에 동아리들의 참석률이나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죠. 첫 대회라 직접 진행하는 학교 외에 타 학교 동아리들은 대회가 얼마나 크고 기존의 대회들과는 다른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네요.

장 저희 남부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팀이 나올 줄 알았는데 8팀밖에 없었잖아요. 그 점에서 저희가 다른 동아리보다 참가비를 적게 낸 것도 아닌데 부원들이 불만이 있었죠. 또 중간에 슈테른이 기권을 하면서 그마저도 더 줄었고요. 슈테른 같은 경우는 두 경기를 안 나와서 다음 경기를 할 상대팀 주장이 미리 연락을 해서 다음 경기는 나올 거냐고 물었는데 나온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안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김 한번 학교 내부에 행사가 있어서 경기를 못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운영단에는 별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뛰는 동아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었죠. 저희 잘못도 있는 게 과사무실과 자주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송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합을 다시 치러야하는데 그 다다





음 주가 플레이오프였거든요. 이미 체육관 대관, 중계가 다 계약이 되어있는데 동부지구는 순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다음 주가 플레이오프였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잠깐 말이 나왔는데 몰수경기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솔직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맙죠. 쉬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심판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경기 뛰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면 미리 연락을 해주거나, 최소 당일 아침이라도 연락을 주면 괜찮는데 사실 다들 멀리서 오는 거잖아요.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안 오면 많이 화나죠. 결국 상대팀이 안 와서 저희랑 심판분들이랑 팀을 짜서 미니게임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어차피 코트가 비니까.

송 제 입장에서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상대팀의 입장도 있고 또 대회운영비도 들어가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대회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처음 치르는 대회인데 파행이 있으면 아무래도 모양새도 좋지 않잖아요? 대회 룰이 FIBA룰이니까 몰수패를

당한 팀은 꼴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몰수패 때문에 꼴찌인데 쳐도 되고 이겨도 되고 상관없지 않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장 처음 안 나왔을 때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해도 두 번째 안 나오고, 상대팀이 연락을 해서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이런 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계속 몰수패가 나오는 팀은 1~2년 정도 대회출전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임 이게 리그제이기 때문에 몰수 한 번으로 지구 꼴찌가 된다면 그 후로도 몰수패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몇 번 이상의 몰수패에 대한 강한 처벌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몰수패를 당할 경우에도 절대 몰수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정도의 처벌은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합을 위해 다들 모였는데 상대팀이 오지 않아 몰수경기가 되면 정말 힘이 빠질 것 같은 거거든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동아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을 꽤 컸을

거예요. 특히 멀리서 온 팀들은요.

김 저희는 상대가 안 와서 몰수패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 시합 중에 선수가 다쳐서 게임을 포기한 적은 있었어요. 정강이뼈가 부러져서 선수가 구급차로 병원에 가는데 또 한 명이 보조자로 가야 해서 게임진행을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딱 시합할 인원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회가 올해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점이 올해에는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장 일단 몰수패 얘기했던 그 부분이 크고, 다른 건, 시설물과 관련한 지원이 아쉬워요.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을 했죠. 그런 게 시합하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었으면 해요.

진 아무래도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날이 추워져서 진행하기가 힘들었어요. 난방시설이나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참가하는 팀들에게 기념품을



제작해준다거나 하면 참가하는 팀들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 물수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심판 분들이 좀 더 경기 진행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 말이 많으니까요.

장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용한 물통이나 용품들을 다들 그냥 버리고 가세요. 이런 걸 교육을 잘해서 본인들이 사용한 물품은 제발 자리에 버리고 가지 마시고 뒷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첫 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임 매주 좋아하는 농구를 운영하고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를 우승한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들었던 걸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가 만들어진 게 정말 좋고 대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매니저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점점 더 대회가 커져서 더 많은 대학동아리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장 처음 접해보는 대회에 나와서 직

접 경기도 뛰어보고 운영도 해봤는데 다른 대회들은 첫 대회면 팀들 모으기도 힘든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도 되고, 팀들도 많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고요. 크게 뼈격대거나 큰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에 좀만 더 보완되면 대회도 커질 수 있고 좋은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처음 접하는 거라 좀 어렵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니까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다른 대학교들은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새로웠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니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도 계속될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송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조별리그를 기획하는 것이고 2안은 대학별로 기존 교내대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후원을 해주고, 예선전을 겸한 후에 저희는 최강자전만 치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서울·경인지역을 벗어나서 충청지역이나 부산같이 다른 권역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대학생들의 참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준 기획·운영단의 힘이 컸습니다. 특히 경기 진행이나 기록 같은 세세한 운영들이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기 내·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는 점은 의미가 큼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스포츠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범운영을 넘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성공적이라 자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획·운영단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점차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런 대회가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만들어나가는 '학생들의 이야기' 또한 중요하겠죠. 올해는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를, 그리고 이를 구성해내고 만들어갈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글/권오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KBS 스포츠부 기자

정재용

1등과 금메달.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목표다. 우리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에 겨워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환호한다. 이 장면만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가 있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라는 책을 발간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실태를 진단하고 ‘스포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재용 KBS 스포츠부 기자 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 * *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재용 기자는 책을 통해 성적 위주의 시스템 아래 생긴 폐해를 분석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금메달과 1등을 지향하는 시스템보다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하는 시스템을 통해 스포츠 저변을 계속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일단 운동이라도 집중하게 해주자’라는 모토 아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엘리트 스포츠가 시스템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축구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2002년부터 주말리그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까지 축구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을 개최하고 4강까지 갔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학부모들이 이제는 학교 수업을 못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대학 진학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을 그만뒀을 때 사회적으로 먹고살기 힘든 환경이니 자식들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리그 출범 이후에는 약 500



개까지 줄어들었던 팀이 약 750개 정도로 늘어나 50%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 운동부보다 클럽팀이 더 많고 전국대회 상위권은 클럽팀이 차지하고 있다. 공부도 잘한다.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경기력 위주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안만 나왔다. 정답은 나와 있었지만 이제 경기력 위주의 시스템은 먹고 살기 좋아졌고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대로다. 시스템 개혁과 경기력 향상을 두고 성과 없는 논쟁만 계속됐다. 현재에 이르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례는 책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많이 쌓였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한 최저학력제도가 도입되고 초·중·고 주말리그와 대학농구·배구·축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출범 등 큰 틀이 잡혀가면서 실제로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피해를 보는 선수들과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버리자는 말은 아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는 통합되고 같이 가야지,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

스포츠 기자가 되는데 왕도란 없다

스포츠 기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스포츠 기자는 여러 분야를 거치는 일반 기자들보다 한 분야에 집중하므로 전문성을 갖추기 쉽다. 경기 일정이 상당 부분 나와 있어서 돌발 상황이 많지 않다. 대신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스포츠팬들은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된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하다 다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들어가 일반적인 체대생 생활을 했다. 운동선수는 그만뒀지만 스포츠와의 인연은 끊고 싶지 않아서 기자가 되기로 했다. KBS에는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서 1년 동안 일했지만 스포츠 기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는 말에 KBS 스포츠 기사를 따로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해서 합격했다. 아마 KBS에서 기자시험을 두 번 합격한 첫 사례일 것이다. 스포츠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라 그럴 수도 없지만 별 방법이 없다.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스포츠 기자가 되는데 천부적인 재능은 필요 없다. 천부적인 재능을 꺼낼 수 있는 경우는 허재나 이상민한테나 해당된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논술을 보는데, 이러한 절차는 대입시험 볼 때 다 겪어보지 않았냐. 노력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스포츠 기자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별다른 재능이 없었고 평범한 대학생생활을 거쳐서 스포츠 기자가 되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었다.

글/이규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명예기자)
사진/김예슬(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명예기자)
KBS 뉴스 캡처

Again 2007, 동계 유니버시아드 '종합 1위'



유니버시아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이 주관하여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1981년부터는 하계, 동계 대회가 같은 해에 개최된다. 2015년 올해,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개최되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린다.

* * *

인구 5,500만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중에서도 2007년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냈다. 종합순위 1위.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긍정적인 경기결과들을 모아서 '목표'로 세우는데, 2007년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세운 목표는 세계 2위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부터 총 18번의 우승을 차지한 동계스포츠강국 러시아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이 국제 종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우승의 원동력은 단연 쇼트트랙이었

다. 5개의 금메달을 휩쓴 성시백(당시 연세대)의 활약에 힘입어 총 10개의 금메달 중 8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강석(당시 한국체대)과 이상화(당시 한국체대 입학 예정)가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은메달 4개와 동메달 5개를 목에 걸었고, 스키점프에서도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을 '쇼트트랙 강국'이 아닌 '겨울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어주었다.

쇼트트랙에만 메달이 편중되던 상황을 극복하며 겨울스포츠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는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등 경기방법을 모를 만큼 생소했던 스포츠까지 점차 대한민국의 유력 스포츠가 되어가는 중이다.



〈레전드 플레이어〉

‘대회 5관왕’ 성시백

경기 전 긴장을 너무 많이 탓에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성시백. 이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스포츠심리를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대회는 아마 2007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쇼트트랙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성시백은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5관왕에 올랐었다.

‘빙속여제’의 등장 이상화

아시안선수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며 2018 평창까지 금빛 질주가 예상되는 이상화 선수의 시동은 2007년에 이미 걸려 있었다. 한국 체대 입학 앞둔 열아홉의 어린선수가 2007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7초60 (1차 38초46, 2차 39초14)로 당시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선수’ 이승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목에 건 이승훈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였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2007 토리노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과 1000m, 3000m 은메달을 수확하며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는데 일조했다.

2007 토리노동계유니버시아드 한국선수 메달획득 (금 10, 은 11, 동 9)

쇼트트랙 금8,은5,동4	성시백	남 500m	금메달
		남 1000m	금메달
		남 1500m	금메달
		남 3000m	금메달
	김혜경	여 500m	금메달
		여 1500m	금메달
	강윤미	여 1000m	금메달
	남자 단체 (성시백, 이성훈, 이승훈, 이현성, 조남규)	남 5000m	금메달
	조해리	여 1500m	은메달
		여 1000m	은메달
	이승훈	남 1000m	은메달
		남 3000m	은메달
		남 1500m	동메달
	조남규	남 1500m	은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금2,은4,동5	이현성	남 1000m	동메달
		남 3000m	동메달
	허희빈	여 3000m	동메달
	이강석	남 500m	금메달
	이상화	여 500m	금메달
	이기호	남 500m	은메달
	이강석	남 1000m	은메달
	여상엽	남 1500m	은메달
	이주연	여 1500m	은메달
		여 3000m	동메달
		여 5000m	동메달
	모태범	남 500m	동메달
		남 1500m	동메달
	김명석	남 10000m	동메달
스키점프 K95 은2	최용직		은메달
	남자 단체 (강칠구, 김현기, 최용직, 최홍철, 현형구)		은메달



2015년과 함께 시작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8기

2015년 1월이 열림과 동시에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8기의 활동이 시작됐다. 제7기와 마찬가지로 총 14인으로 구성된 이번 8기 기자단은 1월 8일(목) 제1차 기획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취재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15년은 대학생들의 올림픽 ‘유니버시아드’의 동계 대회와 하계 대회가 모두 열리는 흔치 않은 해인만큼, 대학스포츠의 소식을 전하는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

1월 28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홀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제5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2014년도 KUSF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5년도 KUSF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결과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 보고로 진행됐다. 장호성 KUSF 회장(단국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도에도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가 한국 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바른길을 선도하고, 대학운동부 평가를 통해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2015년 KUSF의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장호성 KUSF 회장을 비롯하여 KUSF 회원대학 총장과 체육계 원로, KUSF 집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5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일시 : 2015년 1월 28일 16시
장소 :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우수 홍보대학(최우수)수정

015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일시 : 2015년 1월 28일 16시
장소 :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우수 홍보대학(우수) 수정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최우수상) 고려대 이동엽

15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일시 : 2015년 1월 28일 16시
장소 :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학업성취 학생선수

일시 : 2015년 1월 28일 16시
장소 :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우수지도자상

대학스포츠 별들의 잔치, 2014 KUSF AWARD

1월 28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홀에서 KUSF 총회에 이어 2014 KUSF AWARD 시상식이 거행됐다. KUSF AWARD는 KUSF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주최하고 있으며, 대학스포츠리그 현장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모범이 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에 공이 큰 우수 지도자, 대학스포츠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우수 홍보대학을 선발, 시상한다.

2014 KUSF AWARD 우수 지도자로는 축구 신연호 감독(단국대), 농구 장봉군 감독(단국대), 배구 최천식 감독(인하대)이 선발되었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는 서형승(동아대 4)과 이동엽(고려대 3)이 각각 축구와 농구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발되었고, 축구에 이준형(고려대 3)과 박동진(한남대 2), 농구에 문성곤(고려대 3)과 오승현(단국대 2), 배구에 채상민(충남대 2)이 우수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수 홍보대학 부문에서는 아주대(축구), 상명대(농구), 경기대(배구)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성균관대(축구), 경희대(농구), 명지대(배구)가 우수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 및 수상교에는 표창패와 상금(장려금, 장학금)이 수여됐다.

취재 후일담

여러모로 아쉬운 두 번째 시시각각입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사람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모두 모으진 못하고 반쪽짜리 인터뷰가 되고 말았네요. 확실히 처음 실었던 인터뷰보다는 의견이 적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밖에서 보는 시점과 안에서 뛰는 사람들의 시점은 꽤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낀 인터뷰였습니다. 또 한 번 배우고 갑니다.

권오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첫 웹진 참여는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두 번째 웹진 참여는 그라나다 유니버시아드로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 선수들이 다방면으로 다양한 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뿌듯합니다. 또한 선수들에게도 대학 재학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대표로 뛴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자 피와 땀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노고와 절실함이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라나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 선수들에게도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학스포츠 파이팅! :-)

김다예(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웹진 2월호의 포토타임 취재를 위해 울산, 김해 등지에서 열린 연습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고등학교팀부터 프로팀까지 다양한 팀들과 실전보다도 더 실전 같은 경기를 보여주었던 대학팀들의 의지는 투지로 드러났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도 이들의 열정을 얼어붙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학을 모두 반납하며 동계훈련에 여념이 없는 여러 학교 선수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저 역시 새 학기 새 시즌을 목전에 둔 사실이 문득 실감납니다. 각자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 꼭 이루길 바라며 본격적인 리그 시작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파이팅!

김유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피겨의 인기와 제가 경험한 종목이라는 이유가 맞물려 취재하기 편했고 또 인터뷰 대상들이 저와 또래라서 취재 후엔 친구도 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또 이대 멤버들은 대부분 처음 타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히 피겨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열정도 대단했고 그 관심과 열정이 대학 동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살짝 감동(?)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ㅎㅎ

피겨가 선수 생명이 짧은 종목이라 현재 대학 선수가 거의 없어 농구, 배구 같은 종목처럼 정기적인 기사를 쓸 수는 없었지만 대학 동아리를 통해 피겨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 스포츠로 접하고 어렵지 않게 즐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 있고 기쁜 취재였습니다.

배수민(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김해경 선수와의 인터뷰 중 '이런 현실이니까 마사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파르르 떨리던 그녀의 입술, 그 모습은 만감이 교차했던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는 그녀. 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말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현실이기에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는 그녀에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롤모델이라는 그녀. 언젠가 스티비 원더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세상 앞에 더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길.

이태민(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저는 이번 웹진에 커버스토리나 멘토를 만나다 코너를 맡았습니다. 두 인터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재용 기자님은 기자의 눈으로, 최지현 선수는 선수의 눈으로 학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떠나,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 또한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여겼으면 좋겠고 저도 그 생각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